

북 디자인은 책과의 대화다, 책은 사람이다

북디자이너 서기훈(50) 교수의 디자인은 '편집이라는 인문 과학, 감성공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한다'고 평가된다. 그렇다. 서 교수의 작업실만 해도 사방에 빼곡이 꽂혀 있는 책들에서 뿜어 나오는 인문학적 향기로 가득했다.

대학의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처음 입사했던 곳은 흥성사였다. 흥성사는 현재는 기독교 서적 전문 출판사이지만 1970~80년대, 한국 지성계를 풍미했던 '흥성신서' 시리즈가 출간되었던 출판사이다.

"처음엔 편집 디자인이 아닌 광고 디자인 사업부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사장이었던 이재철 씨가 디자인에 대해 상당히 개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정병규 선생도 그 곳에 계셨었죠."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를 잘 알고 있던 공간이었다. 편집 디자인 일이 광고 디자인 부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서 교수는 그때부터 북 디자인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독자로서 만나던 책을 디자이너라는 주체적 역할로서 접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론 출판인이나 작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디자인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머물렀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디자인의 생명력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피드백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된다고 해도 추상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독자의 반응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책이란 계속 남아 있으



니까 잘못되었을 경우엔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의 대책도 세울 수가 있구요."

반대로 디자인이 성공적이었을 때 자신의 작업이 독자들에게 의해 호흡되고 교감되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주로 혼자서 작업해야 하는 북 디자인의 방식도, 자신만의 것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북 디자인이란 장르 자체가 대외적으로 정착이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고, 몰입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1980년부터 1995,6년까지 북 디자인에 있어서 그는 왕성한 활동을 했다. 작업한 책만 해도 약 2천여 종에 달한다. 초창기부터 아이앤아이라는 회사를 만든 이후 이루어진 작업들이다.

“엄청난 양의 작업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 보니까 부끄럽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한정된 역량 속에서 계속 빼먹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차였죠.”

외적으로는 그 시점에 PC가 보편화되면서 출판사마다 자체 파트에 디자이너를 두는 붐이 일었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북 디자인에 관한 한 지금까지 휴지기 아닌 휴지기를 갖게 되었다.

그 많은 작업들 중에서 손꼽으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많은 이들의 뇌리에 인상을 남겼던 《개미》다. 원작자인 베르베르까지 극찬했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표지에 사실적인 개미 형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요소들을 잘 피해간 듯해서 기억에 남아요. 또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게 실천된 거 같아서 제가 제목을 추천했던 《아이 잘 만드는 여자》도 생각나네요.” 이 밖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리즈, 《타인에게 말걸기》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깊은 슬픔》 등의 작품들이 있다.

북 디자인은 아니지만 활자에 대한 애정을 쏟은 작업이 있다. 바로 타이포 비엔날레와 코리아 국제 포스터 비엔날레에 출품해서 상을 받은 행간풍경이 그것이다. 단지 외형적인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책, 활자, 문자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디자인 관점에서 타이포그래피가 얼마나 아름다운 조형적인 언어가 될 수 있는지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훈의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의 통합을 인간정신의 관점과 관계를 바탕으로 디자인 컨텍스트를 실현함으로써 완성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느꼈어요. 그 갈증을 북 디자인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들었어요.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외려 본질을 느끼게 되었고 나머지 시간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 역시 북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때문에 서 교수는 최근에 다시 현업으로 돌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동안 쌓아온 생각과 작업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북 디자인의 제자리를 자리잡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가 보기에 현재 우리 디자인은 ‘디자인만 있고 디자이너는 없다’. 따라서 북 디자인의 비전과 위상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축적이 되어야 하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지적인 틀로서의 축적이 뭐가 있는가 하는 점이죠. 또 일도 사람도 많지만 하나로 묶는 응집력, 담론, 공동체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광장이 없다는 거죠. 꼭 북 디자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 전반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그는 이것을 총체적인 철학부재 탓이라고 본다. 정체성에 대한 혼재 때문에 암흑시대로 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대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판문화에 대한 사랑, 책에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내용에 대한 존중이 북 디자인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북 디자인의 본질적 인식과 원리에서 출발되는 작업세계가 그 조건이 되겠죠. 디자인 하나하나에 남기는 작업투쟁사, 그리고 실종되어 가는 미술과 아날로그 정신의 부활노력이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러한 정신과 태도가 지속될 때 책이 쌓아 온 ‘창작의 본질’로서의 위상이 북 디자인에도 내재될 수 있으리라 그는 믿는다.

서 교수는 책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것은 바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책을 디자인하는 일은 대화를 나누는 방을 정돈하고 가꾸는 일입니다. 나눌 대화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 내용에 걸맞는 탁자와 의자, 찻잔, 차의 맛과 향, 그리고 대화의 틈을 메꾸는 창가의 바람, 그 바람을 안내할 커튼을 준비하는 일인 것이죠.”

이렇듯 친절한 디자인 방에서 나눈 대화는 책과 사람을 오랫동안 함께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북디자이너 서기훈은 말하고 있다. **서기훈**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